

성인기의 사랑과 친밀감에 관한 토론

박 성 혜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앞서 유가효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내용을 통해 사랑이나 애착 등이 성인기의 친밀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이 성인기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능력도 학습되며 적극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발표자께서 성인기 사랑과 친밀감 등에 관한 연구를 잘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본 토론자는 대중문화 속의 성인기 친밀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제안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성인기에 있어서 사랑은 친밀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친밀감을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친밀감은 더욱 사랑을 하게 만들기도 한다. 앞서 발표문에서 성인기 사랑의 성차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약간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점들이 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사랑에 쉽게 빠지며 사랑하는 대상보다는 사랑 자체에 의미를 두고 상대의 조건 및 결혼이라는 전제에 의미를 두지 않으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에 더욱 의미를 두는 경향이라는 점이다. 대학생 커플에 대한 연구에서도 대부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실용적인 사랑을 더 많이 하고 남학생들이 이타적인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결과들을 볼 때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성역할고정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발표자의 지적에 본 토론자도 의문이 들었다. 그렇다면, 요즘 세대에서는 강해지는 여자, 점점 작아지는 남자의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게 한다. 미디어 속에서 보여지는 남성과 여성의 모습이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음을 볼 때 대부분 현 시대의 경향을 반영한 것

이 아닌가 싶다. 예를 들면, 1992년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보여준 남성의 모습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이었으며, 부부간에 친밀감이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은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요즘의 드라마 <며느리전성시대>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과 같은 드라마에서는 오히려 남성의 힘 구도가 점점 여성에게 밀리거나 평등한 구조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드라마 속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힘 구도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은 강해야 한다라든가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200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 한 해 동안 12만 5,032쌍, 하루 평균 342쌍이 이혼했다고 한다. 흔히 사랑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일부일처제가 웬말인가라든가 애인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는 속설들도 방송이나 언론, 연극이나 영화 등의 문화 속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다. 심지어 최근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영화에서는 '이중결혼'이라는 가치전복적인 상상력을 통해 사랑과 결혼이 주는 진정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혹시 제도의 노예가 되어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보게 한다(아내가 결혼했다-정윤수 감독/ 2008/ 박현욱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의 딜레마를 두 주인공을 통해 결혼제도의 획일성과 몰개성적인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담론화 시키고자 하였다(결혼은 미친 짓이다-유하 감독/2002).

현대사회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두 영화에서 제기했듯이 부부관계의 의미나 기능이 결혼이라는 제도로서의 구조보다 사랑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친밀감을 중요시한다. 결혼의 목적이 어떤 지위 획득이나 재생산의 역할보다는 부부의 동반자 의식, 정서적 친밀감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변모되고 있다. 부부가 상호보완적, 상호 공유적 관계 안에서 안정감 있고 욕구충족적일 때 개인의 행복과 친밀감이 증가한다(Gottman & Levenson, 2000).

Erikson의 심리, 사회 발달단계이론에서 성인기에 수행해야 할 과업은 어떤 특정한 경력을 위한 연구와 일들, 이성과의 교제와 결혼, 그리고 가정형성의 시기로 대인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보고 있다. 성인기는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미래의 꿈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결혼 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의 폭이 확장되기 때문에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발달과제로 보고 있다.

최근에 발달된 애착이론의 통합적 관점에서는 부부유대의 필수 요소인 애착(attachment), 보살핌(caregiving), 성(sexuality)을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는 행동 체계로 보았다(Jacobson, 2003). 최근에 애착이론은 부부나 연인 등 성인기 친밀한 관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관점으로 작용되고 있다. 앞서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성격, 성장과정, 부모의 양육태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친밀감을 표현하는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서로 살을 맞대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무뚝

딱하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사람은 친밀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다. 부부의 친밀감을 저해하는 요인은 앞서 양육환경, 성격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 후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보다는 자식과만 사는 엄마들의 경우 엄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내의 자리를 잃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즉, 자식 위주로 생활하다보면 부부의 생활은 거의 전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육아나 가사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가 퇴근 후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면 조그마한 일에도 오해를 하거나 회피를 하게 되는 것 또한 부부간의 친밀감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성적 친밀감은 부부간의 친밀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데, 성적 친밀감이란 신뢰와 애정을 바탕으로 파트너와의 성적활동을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성이라는 부분을 금기시하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섹스리스’라는 주제로 부부들의 솔직한 성이야기를 풀어낸 적이 있었다(그것이 알고싶다 396회 방송분). 그 방송에서는 다양한 부부의 성이야기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대부분 성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가지 못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내용이었다. 최근 한국 성과학연구소가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달에 한번 미만의 부부관계를 갖는 섹스리스가 28%에 달한다고 한다. 이 통계수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이미 많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노란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부부 관계서 서로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방송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성에 대한 몇 가지 오해로 인해 부부관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부관계 횟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잠자리의 적극성이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는 오해라든가, 섹스는 노동이라는 등의 속설이 부부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로 인해 부부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의학적인 사실에 의하면, 적절한 성생활은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로 인한 스킨십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친밀감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만든다. 이러한 친밀감은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성관계를 하게 되는 긍정적인 순환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불행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므로 부정적인 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마침내 부부갈등이나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성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부, 즉 장애로 인한 성기능 저하 부부처럼 성생활이 없다고 부부관계가 끝나거나 친밀감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서로간의 신뢰로 키스나 스킨십을 통해서도 친밀감 호르몬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성생활이 없는 것이 모든 부부관계의 끝으로 보고 있다. 성관계라는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성에 대한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문화 속에 자리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앞서 애착이론에서 부부유대의 필수 요소가 애착(attachment), 보살핌(caregiving), 성(sexuality)이며 이 세 요소들이 각기 독립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기본적인 애착이나 보살핌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언급을 하지만 우리는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못하는 문화 속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부 혹은 연인간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섹슈얼리티는 단순한 성지식이나 피임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성가치관, 성태도, 성역할 고정관념 탈피, 성적지향, 성적자기결정권 등 다양한 지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성인 세대에서는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점검하고 이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지만 성인기의 친밀감은 이러한 섹슈얼리티 교육을 통해 일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앞서 발표자가 제안했던 것처럼 대학에서의 교양과목의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긍정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인간관계교육, 인성교육 등을 통해 관계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런 교육에 대한 경험이 없는 지금의 성인기라면 성인기에 초점을 둔 섹슈얼리티 교육을 민간/공기관이나 그들의 직장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부부 혹은 연인 간의 성 등에 대한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부부간 혹은 연인 간에 이러한 솔직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을 위한 자리를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기관이나 직장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부부에게 있어서 '성'이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면, 가정에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부부간에 솔직하게 성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서로가 솔직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부부가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싫다고 각 방을 쓰는 행동은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혹시라도 심리적인 문제로 부부간 성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상담치료를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처럼 주인공인 두 사람이 연애와 결혼은 다르며, 각자 또 다른 결혼과 연애를 꿈꾸었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은 '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서로 솔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셋째, 부부 사이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야 한다는 부부십계 내지는 결혼에 대한 환상이 오히려 관계를 저해하기도 한다. 각

각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의 부부 유형에 맞는 십계명을 만들어야 한다. 상대적인 평가와 비교가 오히려 관계를 저해하고 친밀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처럼 Lee(1988)도 사랑의 유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랑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것으로 사랑에 대한 생각도 역사적으로 변화해왔으며 한 개인의 일생을 통해서도 변화가능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단 한 가지의 사랑유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한 사랑의 유형도 개인사나 관계의 역사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사랑의 유형이나 방법이 동일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부부의 날, 가정의 날 기념일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캠페인이나 부부의 날, 가정의 날과 같은 기념일을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홍보 및 제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부에서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하고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념하고 부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또한 가정의 날도 일부 기업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가정의 날로 정하고 정시에 퇴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그리 많지 않다. 너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기념일을 생각할 틈도 없는 구조 속에서 부부간의 친밀감이 저절로 생기기를 바라는 것은 억지이기도 하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부부의 날이나 가정의 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것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직장 제도나 문화로서 정착시켜야 한다.

다섯째, 온라인상의 부부커뮤니티를 활성화해야 한다.

요즘 일부 부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부부레터나 부부우체통 등으로 서로 소통하거나 부부강좌 등을 함께 들으면서 친밀감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갖지 못함으로써 대화를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부부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자꾸 활성화시켜주어야 한다.

여섯째,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복지관이나 사설 기관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인후기나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성인기에 맞는 프로그램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부 프로그램은 부부댄스 등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지만 그 프로그램의 종류나 수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부부의 모습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부의 모습, 자신들의 부부의 모습 등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보는 미디어' 코너나 '부부 영화의 날' 등과 같이 부부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기의 사랑과 친밀감에 대한 토론으로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부족하지만, 이번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본 토론자가 성인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의 사랑과 친밀감도 재점검해보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행복한 성인기를 거쳐서 잘 준비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토론을 마친다.